

광산구 지역경제 '새로운 심장' 이 된다

공기산업·중소기업 지원 거점
지역경제활력센터 본격 운영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지난 25일 개관한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 내에 설치된 시설물을 민형배 국회의원과 김삼호 구청장 박현석 구의원 등이 살펴보고 있다.

공기산업 발전과 지역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가 공식 개관했다. 2019년부터 3년간 추진해 온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결정체'로, 지역 공기산업의 힘찬 도약을 이끌 핵심거점이 될 전망이다.

광산구는 공기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와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8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광산구는 특히 실외 공기질 관제 신기술 개발(R&D), 시민친화적 시범실증단지 구축 및 운영(실증), 광산구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공간) 등 3개 단위 사업을 통해 각종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고정밀 1등급 미세먼지 측정 센서를 개발하고, 이동형과 전선주형, 지주대형 등 보급이 쉬운 측정기를 만들어 총 180대에 설치 완료했으며, 고효율 청정-환기 시스템을 광산구청사 등 10개 버스승강장에 구축·가동 중이다.

공기산업 매카 조성을 위한 토대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다.

지역 기업의 실외 공기산업 융합신제품 개발을 지원해 20건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411명의 전문 인력 양성과 38명 신규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성과

도 이뤘다. 외부기업도 3곳이나 유치했다. 이들 기업은 현재 미세먼지 측정기 사업과 및 청정환기장치 양산 라인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이들 기업 중 한 곳은 해외수출 기업이다.

지역경제활력센터는 3년 시범사업의 최종 성과물인 동시에 지역산업 혁신과 변화의 '시작점'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지속·발전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소촌아트팩토리 부지 내 63억 원을 들여 건립한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575.32㎡ 규모로 중기업 지원을 위한 입주사무실, 실험실, 전시실, 주민을 위한 강당 및 미세먼지 VR(가상현실) 체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앞으로도 공기산업 인프라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공기산업 기업 지원 및 육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곳곳에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기로부터 수집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알려주는 '에어 광산'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학교와 공원, 공간 등의 미세먼지 취약시간-장소 등을 분석해 정화장치를 가동하는 등 효율적인 청정공기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술 이전,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지원사업 등 공기산업 기업 육성, 유관 기업 유치와 연계 산업분야 기업 전환 유도 등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역경제활력센터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을 뒷받침하는 혁신적인 경제발전소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밝은 미래를 향한 혁신성장과 도약에 광산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금호타이어 이전 부지 상생발전 방안 찾아야"

박현석 광산구의원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분량동·사진)이 지난 28일 광산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후 남은 부지와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지구 등을 연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계획 수립 전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공공성이 우선되는 종합발전 계획 수립 등도 당부했다.

박 의원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합평 빛그린 산단 이전에 대해선 유감이지만, 이전 후 남은 부

지 개발과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지구 사업을 연계한다면 광산구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호타이어 이전으로 인해 지역 일자리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광주시가 추진하려는 서남권 광역교통과 물류 허브, 산업, 업무, 주거 융복합 지구와 연계한 종합발전 계획이 수립된다면 광산구의 도시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공병철 구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틀 마련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사진)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27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지도자'를 '마을활동가'로 변경하고, 광산구에서 활동 중인 마을해설사, 마을활동지원가, 마을기록가, 회계실무지원가 등을 마을활동가 범주로 포함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을공동체 사업의

범위를 마을 행사는 물론 역사와 문화, 예술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25일 의원, 관계기관, 마을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쳤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이귀순 광산구의원, 아동친화도시 개정안 발의

이귀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가동·신창동·사진)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 271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명에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적용하는 아동의 범위를 청소년(9세 이상 24세 미만)을 제외한 18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아동이 차별로부터 보호받도록 구체화했으며, 구정장이 아동 관련 단



체나 기관에 아동참여 위원회 구성·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구정장이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광주시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인 오는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국세인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이며 2만7500여 개 법인이 해당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을 2개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은 각각의 지자체에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1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다른 소재지 지자체에는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8월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광산구 기독교계, 소상공인 돕기 두 팔 걷었다

송정제일교회·광주은광교회

광산경제백신회의에 성금 기탁



지역경제를 지키는 광산경제백신회의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 두 교회에 앞서 송정중앙교회와 새희망교회 등도 성금을 기탁한 바 있다.

한편 2020년 4월 결정한 광산경제백신회의에는

지역의 45개 민·관·산·학·연 그리고 종교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특히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1% 희망대출 등 경제백신으로 부르는 16개 지원 정책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광산구 기독교계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송정제일교회와 광주은광교회는 지난 24일 각각 1000만 원을 투계터광산나눔문화재단에 기탁했다. 해당 기탁금은 광산경제백신회의로 전달됐다. 광산구청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유갑준 송정제일교회 담임목사와 전원호 광주은광교회 담임목사,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 조광수 회장, 전성수 사무총장, 허상용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정중현 기업주치의센터장, 이혜숙 투계터광산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최석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두 교회는 누적되는 코로나19의 무게를 신도들이 나눠 짊어주는 취지로 성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광산구 기독교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부터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